

『傷寒論』 六經 진단체계에 근거하여 吳茱萸湯을 투여한 陽明病 아토피 피부염 1례

윤수민* · 임은교#

서울 강동구 암사2동 502-17 2층 맑은숲한사랑한의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병원 한의학관#

A Case Report of Atopic Dermatitis treated by Osuyu-tang (Wuzhuyu-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Su-min Yun* · Eun-kyo Im#

O2 Hansarang Oriental medical clinic, Amsa2-dong, Gangdong-gu, Seoul, Korea*
Dong-guk university hospital, Siksa-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Korea#

Abstract

Objective : This case report aims to show the effect of Osuyu-tang on an atopic dermatitis.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Yangmyung-byu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Methods : According to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Yanamyung-byung and has been unusual dietary habits. So she took Osuyu-tang decoction for 2 weeks. We evaluated the results of treatment by SCORAD Index and before and after treatment photos.

Results : After taking Osuyu-tang decoction for 2weeks, the patient's SCORAD INDEX and symptoms was decreased from 49.5(severe) to 3.5(mile). Also, the patient's chronic diagestive disorder improved.

Conclusions : This case report showed an effectiveness of using Osuyu-tang according to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on atopic dermatitis.

Key words : Atopic dermatitis., Osuyu-tang(Wuzhuyu-tang, 吳茱萸湯),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Yangmyung-byung(Yangming-bing, 陽明病)

* 교신저자 : 윤수민. 서울 특별시 강동구 암사2동 502-17 맑은숲한사랑한의원. O2 Hansarang Oriental medical clinic, Amsa2-dong, Gangdong-gu, Seoul, Korea. E-mail : suminhani@gmail.com

· 접수 : 2013년 11월 18일 · 수정 : 2013년 12월 01일 · 채택 : 2013년 12월 18일

緒 論

아토피피부염은 피부건조와 소양증을 특징으로 하는 가장 흔한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 중의 하나로 유전적인 소인과 여러 가지 외부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복잡한 병리 생리학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¹⁾. 국내에서도 증가 경향을 보이거나²⁾ 경증 또는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게 실제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약물치료는 항히스타민제와 국소 스테로이드 외용제, 스테로이드 경구제, 국소 면역조절 외용제로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차별화된 치료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게는 국제적인 치료지침들³⁾에서 권장하고 있는 전신 면역억제 약물요법(cyclosporin, mycophenolate), 광선요법, 알레르겐-면역요법 등의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⁴⁾.

한의학적으로는 아토피피부염을 胎熱, 奶癩, 浸淫瘡, 四彎風 등의 범주로 보아 風熱, 濕熱, 血虛風燥, 血熱, 濕熱溫燥 등으로 접근하였는데⁵⁾, 기존의 연구에서 아토피피부염에 傷寒論 처방을 활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桂枝加黃芪湯⁶⁾, 大柴胡湯⁷⁾, 柴胡桂枝湯⁸⁾ 등을 응용한 증례가 보고되어 있다.

본 증례에 사용된 吳茱萸湯은 『傷寒論』⁹⁾에서 陽明病, 少陰病, 厥陰病에서 언급되어 있으며 특히 陽明病에서는 “食穀欲嘔者, 屬陽明也, 吳茱萸湯主之.”라 하였다. 본 환자를 大陽病, 少陽病, 陽明病, 大陰病, 少陰病, 厥陰病의 提綱에 따라 六經病證으

로 구분하여 환자를 진단하는 六經진단체계¹⁰⁾로 접근하여 陽明病으로 진단하고 주소증인 아토피피부염에 사용하여 유의할만한 치료결과를 관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證 例

1. 환자명 : 임 ○ ○
2. 성별/연령 : 여성 / 24
3. 키/몸무게 : 162cm / 57kg
4. 결혼여부/직업 : 미혼 / 대학생
5. 주소증(c/c) : 피부 접히는 부위의
 - 1) 소양감(癢痒感)
 - 2) 구진(丘疹)
 - 3) 인설(鱗屑)
6. 발병일(o/s) : 2013년 5월 초
7. 현병력(history) : 상기 환자는 2005년 여름에 아토피 피부염이 발병하여 간간히 치료를 받던 환자로 2013년 5월 초부터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갑작스럽게 구진이 발생하여 소양감이 극심하고 이로 인해 숙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8. 가족력 : 별무
9. 과거력 : 2011년 복강경 수술

10.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11. 身體 諸般 常況

Table 1. 참고

12. 진단 및 평가 방법

1) 六經診斷 및 條文의 선정

Table 2. 참고

본 학회의 六經診斷체계¹⁰⁾에 따라 환자의 六經을 감별 진단하였다. 六經提綱과 條文의 변화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였다.

2) 평가방법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증상은 SCORAD 지수¹¹⁾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환자의 피부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문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손상부위 (Extent of affected areas)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 있는 피부의 면적을 Rule of nines에 의해서 계산하였다(0-100).

(2) 병변의 정도 (Intensity of a typical lesion)

아토피 피부염에 나타나는 다음의 6가지 피부 병변의 정도를 0-3 (0은 none, 3은 매우 심함)으로 등급을 매겼다.

- 홍반 (Erythema)
- 부종/구진 (Edema/papulation)
- 삼출/가피 (Oozing/crust)
- 찰과 (Excor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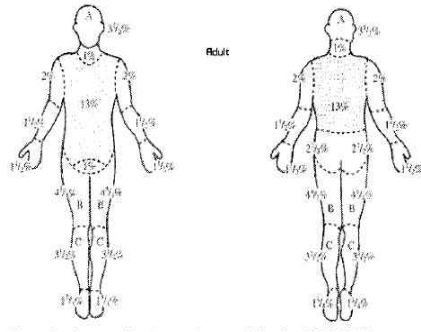


Fig. 1. Area of atopy dermatitis in SCORAD

- 태선 (Lichennification)
- 손상되지 않은 부위의 건조 (Dryness of unaffected area)

(3) 환자의 주관적 증상 (Subjective symptoms)

소양증(pruritus)은 0에서 10까지 등급을 매겼으며 0은 가려움이 없는 것, 10은 매우 심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수면곤란 (sleep loss)도 환자가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정도를 0에서 10까지 표시하였다.

SCORAD 점수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였다.

SCORAD = ([1) 손상부위/5] + [2) 병변의 정도/2 * 7] + [3) 주관적 증상]

13. 치료경과

1) 경과

Table 2. 참고

2) 평가 지표 변화

Table 3. 참고

Table 1. 身體 諸般 狀況

1.	좋다.
2. 消化	맹물에 끓인 밥 밖에 먹을 것이 없다면 굶는 쪽을 선택할 정도로 이에 대해 심한 거부감이 있다.
3. 口渴	갈증을 느끼지 않고 습관적으로 물을 조금씩 마신다.
4. 汗出	피부가 건조하고 땀은 잘 나는 편이다.
5. 大便	2~3일에 한 번씩 대변을 보고 변이 조금 무른 편이다.
6. 小便	하루에 8~9번 정도 가는데 자주 마렵고 조금 시원하지 않은 것 같다.
7. 寒熱	더위, 추위 모두 많이 탄다. 더위를 더 싫어한다.
8. 頭面	오후에 머리가 잘 아프다. 더울 때 더 심하다.
9. 呼吸	별무
10. 胸	한숨을 자주 쉰다. 소화가 안 될수록 더 심하다.
11. 睡眠	6~7시간 수면을 취하나 중간에 소양감 때문에 잠에서 깨면 30분~1시간 가까이 다시 잠에 들지 못한다.
12. 身體	겨울에 발이 차고 목과 어깨가 늘 빠근하다. 체력이 좋다.
13. 婦人	생리는 불규칙한 편이고 주로 늦어지는 편이다. 생리양도 많지 않은 편이다.
14. 스트레스 대응 방식	감정표현에 익숙하지 않고 잠잠한 편이며 다른 사람과 감정교류에 능숙하지 못하다. 화를 잘 내지 않고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편이다. 새로운 일을 계속 찾아 헤매기 보다는 안정적인고 규칙적인 생활 가운데 즐거운 일을 하는 편을 선호한다.

Table 2. 진단 및 경과

초진일	2013년 5월 29일
육경진단	환자의 아토피가 시작된 2003년 5월을 병력 청취 해보니, 외고 생활을 하면서 늦게까지 야간 자율 학습을 하였고, 입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였으며, 자습이 끝난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고 자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부터 시작한 아토피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스트레스로 재발하였고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갑갑하면서 조여 오는 듯 하며 원치 않는 음식을 먹게 될 경우 메스꺼움과 구역질을 동반하는 증상이 있었다. 따라서 환자의 병의 시작과 악화 원인이 음식이 몸 내부(胃家)에 들어가면서부터 병이 시작하는 패턴을 따라간다고 판단하여 陽明病으로 진단하였다. - 胃家 是也
조문진단	환자는 맹물로 끓인 밥을 안 먹는다고거나 쇠로 된 수저를 사용하면 식사를 못한다고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했으며 그것을 먹는다는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온다는 표현을 하였다. - 食穀欲嘔
진단명	㊦ 陽明病
관련조문	㊦243. 食穀欲嘔者, 屬陽明也, 吳茱萸湯主之. 得湯反劇者, 屬上焦也.
처방	吳茱萸湯 (1일 2첩 3회 복용)

	[및 1일 용량] 生薑 12g, 吳茱萸 10g, 人蔘 6g, 大棗 6g	
재진일	吳茱萸湯 복용 1일 후	2013년 5월 30일
재진내용	목과 왼쪽 팔의 접히는 부분에 구진과 함께 인설이 동반되었고 태선화가 진행되었다. 소양감은 점심 식사 이후와 새벽에 다소 심했다. (Fig. 2. 참고)	
진단명	上同	
처방	上同	
재진일	吳茱萸湯 복용 3일 후	2013년 6월 1일
재진내용	구진의 크기와 범위는 그대로였으나 붉은색이 줄어들었고, 인설은 비슷한 양상을 유지했다. 소양감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하였다. 갑자기 하루 동안 1회에 보는 소변과 대변의 양이 늘어났다.	
진단명	上同	
처방	上同	
재진일	吳茱萸湯 복용 7일 후	2013년 6월 5일
재진내용	구진의 크기와 범위가 점차 감소하였고 붉은색이 더욱 줄어들었으며 인설이 증가했다. 소양감도 거의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감소하였다. 대변의 양이 1일 1회로 증가했다.	
진단명	上同	
처방	上同	
재진일	吳茱萸湯 복용 14일 후	2013년 6월 12일
재진내용	구진과 인설이 모두 사라졌으며 소양감도 없다. (Fig. 3. 참고)	
진단명	上同	
처방	上同	
재진일	吳茱萸湯 복용 종료 5개월 후	2013년 11월 10일
재진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음 1제 복용 이후 다시 한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나 덥고 습한 여름을 보내고, 유럽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아토피가 예전처럼 심해지지 않았고, 붉은 흉터도 많이 줄었다. 시험기간에 1회 약하게 재발하려 했으나 다른 처치 없이 금세 가라앉았다. 2) 컨디션이 많이 개선되어 소화 장애가 덜하고 胃家 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저녁을 많이 먹거나 야식을 먹는 상황을 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3) 전보다 많이 먹어도 불편함이 없고 많이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다. 오후에 있던 두통이 사라지면서 항상 달고 살던 초콜릿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Table 3. 평가 지표 변화 (SCORAD Index)

지표	2013년 5월 30일	2013년 6월 12일
SCORAD Index	49.5 (Severe)	3.5 (Mild)



Fig. 2. Before Treatment



Fig. 3. After Treatment

考 察

六經診斷체계는 『傷寒論』의 六經提綱에 근거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질병의 양상을 여섯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처방을 선정한다. 여섯 개의 범주는 단순히 환자가 호소하는 질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에 이르게 된 환자의 삶과 생활 습관, 감정 변화, 스트레스 대응 양상,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무너져 내려가는 방향 등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본 증례의 경우는 환자의 아토피 피부염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병이 오게 되었던 시점과 환경, 그 당시 스트레스에 대응했던 방식(입시 스트레스가 심했던 고등학교 생활, 야식을 많이 먹게 되었던 습관, 표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주입식 공부만 했던 스트레스 대응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여 胃家実로 인해서 시작된(是也)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하고 陽明病 吳茱萸

湯을 투여하여 호전된 증례이다.

본 환자는 吳茱萸湯을 복용하면서 대변과 소변양이 크게 증가하였고, 체한 듯한 더부룩함과 명치의 갑갑함이 해결되면서 아토피 증상이 호전되었다. 이것은 아토피 피부염을 바라보기에 앞서 胃家実에 해당하는 체강이 해소되면서 그에 수반되었던 질병이 좋아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기존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서양 의학적 치료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차별화된 치료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특히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환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는 면역조절작용을 통한 접근이 대다수였다.¹³⁾¹⁴⁾¹⁵⁾¹⁶⁾ 六經診斷체계에 따라 陽明病을 진단하고 치료가 이루어진 본 증례에서는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胃家実로 추정되는 소화 장애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아토피 피

부염의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그 병을 만들게 된 생활 습관을 교정해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환자는 한약 복용을 중지한 후에도 5개월이 넘도록 胃家實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약식이나 간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이 관리만을 하면서 아토피가 재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六經病을 감별함에 있어서 본 환자 역시 頭項強痛이 존재하였지만 大陽病으로 진단하지 않고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시기와 관련된 인자들을 추적하여 그 병이 오게 된 원인을 胃家實에서 찾음으로써 단순한 증상의 호소만으로 六經病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함께 시작되고 반응하는 양상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陽明病 吳茱萸湯 조문에서 나타난 食穀欲嘔는 본 환자에게서 특정 음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 원하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는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오거나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차후 陽明病 吳茱萸湯에 대한 임상 증례가 많이 쌓인 후에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結 論

1. 六經診斷體系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陽明病 吳茱萸湯을 투여한 결과 SCORAD Index는 치료 전 49.5(severe)에서 3.5(mild)로 변화하였다.

2. 주소증인 아토피 피부염의 호전과 더불어 陽明病의 제강인 胃家實이 호전되면서 대·소변 양이 늘고 소화 장애가 개선되었다.

3. 환자와 질병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는 六經診斷體系는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물이나 변증에 국한되지 않은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參考文獻

1. 박영립, 아토피피부염에서 보습제 사용. 한국 피부장벽학회지, 2007;37-40.
2. Jee HM, Kim KW, Kim CS, Sohn MH, Shin DC, Kim KE. prevalence of Asthma, Rhinitis and Eczema in Korean Children Using the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ISAAC) Questionnaires. *Pediatr Allergy Respir Dis.* 2009;19(2):165-72.
3. Hanifin JM, Cooper KD, Ho VC, Kang S, Krafchik BR, Margolis DJ, et al. Guidelines of care for atopic dermatiti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AAD)/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Associ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J Am Acad Dermatol* 2004;50:391-404.
4. 박양. 한국에서 아토피피부염 진단과 치료의 임상적 실태 조사. *Pediatrics* 95 (2013): 61.
5. 허인희, 홍성민, 엄유식, 변학성, 심성용, 김경준. 외치요법을 위주로 한 아토피피부염 환자 증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 2006;19(3):201-8.
6. 정진영, 김윤범. 桂枝加黃芪湯으로 치료한 소아 아토피피부염의 한방치험 3례 - 삼출을 주증상으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2):131-9.
 7. 홍성민, 허인희, 변학성, 심성용, 김경준. 傷寒論 처방을 이용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1례 보고.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230-9.
 8. 서민수, 허인희, 심성용, 김경준. 柴胡桂枝湯加味方 투여로 호전된 아토피피부염 환자 증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8;21(3):215-225.
 9. 張仲景. 康平傷寒論. 大韓傷寒金匱醫學會. 2013.
 10. 이성준, 임재은. 傷寒論 六經과 條文에 근거한 診斷體系 및 臨床運用. 大韓傷寒金匱醫學會. 2013.
 11. European Task Force on Atopic Dermatitis. Consensus Report. Severity scoring of atopic dermatitis : the SCORAD index. *Dermatology*. 1993;186:23-31.
 12. 이승인. 新古方撰次. 군자출판사. 2012: 371-400.
 13. 황윤규, 박보경, 김선빈, 이용구, 진미립, 김동희. 형개련교탕가미발효방(荊芥連翹湯加味醱酵力)의 항아토피피부염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1;19(2):85-100.
 14. 김선빈, 김수명, 김동희. 배독환발효방(排毒丸醱酵力)의 면역조절작용을 통한 항아토피 효능.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1;19(2):101-118
 15. 강현숙, 김승형, 김선빈, 김수영, 김동희. 청열탕(淸熱湯)의 생물전환을 통한 항아토피 피부염 효능(效能) 연구(研究).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1;19(2):119-137
 16. 유현숙, 김선빈, 송향희, 지중구, 박지원, 김동희. 아토피피부염 동물 병태 모델에서 청화탕(淸華湯)의 면역조절작용에 관한 연구.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2;21(1):53-63